

일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간의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이태희* · 박소은** · 김태현***

Urban Regeneration through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s in Japan: A Case Study of Yokohama City and Yokohama City University Partnership

Taehee Lee* · Soeun Park** · Taehyun Kim***

요약 : 대학은 지식·인적 자원, 공간·시설 자원, 그리고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동시에 대학은 교육, 연구와 함께 봉사의 사회적 임무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정비 방식을 추구하는 도시재생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즉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어떻게 실현'하여 '어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이 현재 당면한 고령화, 지방 쇠퇴, 학령인구 감소, 기성시가지 쇠퇴 등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며,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사례의 고찰을 통해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대학, 지역사회, 협력, 일본, 도시재생

Abstract : University has various resources such as intellectual-human resource, spatial resource and facilities, and economic resource. At the same time, universities are, in general, found upon fundamental mission of public service, as well as teaching and research. Recently in Korea, it has been argued that we should make use of such resource of universities in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Yet, these arguments are lack of concreteness: 'which' kind of resource for 'what' kind of problem, and 'how'.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d the case of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in Japan and tried to find of some implications to Korean society. The reason for examining Japanese case is because Japan has experienced similar problems that Korea face such as aging population,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 deteriorations of existing urban area; there are respectable amount of similarities between Japan and Korea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text; and because Japan has proceeded regeneration of communities through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s.

Key Words : un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 Japan, urban regeneration

본 연구는 서울연구원의 2014년 정책과제(2014-PR-45)의 일부임.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초빙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Research, The Seoul Institute), t.h.lee@outlook.com

** 펜실베니아대학교 역사경관보존 석사(M.S. in Historic Preserv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se0718@naver.com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Research, The Seoul Institute), innerpower69@si.re.k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기성시가지 쇠퇴 등 유사한 문제들을 선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그 중에서도 대학 주변 커뮤니티 재생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서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연구이다.

대학은 학제 상 최상위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지식·인적 자원, 공간·시설 자원, 그리고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Cox, 2000). 이렇게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 및 지역민들의 복리향상 등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박영한 등, 2001).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대학 자원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들의 잠재력을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이후 대학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대학생 봉사활동, 캠퍼스 개방 등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여혜진·김광중, 2008).

특히 이번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도시재생, 그 중에서도 대학 주변 커뮤니티 재생과 관련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세용, 2011; 류훈, 2011; 여혜진 등, 2010).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과거의 뉴타운, 합동재개발 등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도시 재정비 방식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재정비를 추구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이태희, 2015).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골목경제 살리기”¹⁾(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 지역 커뮤니티에 중점을 두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의 경

우, 도시(urban) 단위라기보다는 지역 커뮤니티(local community)단위에 중점을 둔 재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재생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교원과 학생, 그리고 공간·시설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연구 기관인 대학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 된 도시재생과 관련한 대학-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학이 가진 이러한 다양한 자원의 구체적 활용 방안,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록 90년대 이래로 대학 평생교육, 대학생 봉사, 담장 개방 같은 시설개방에 관한 분야가 교육, 사회복지, 도시계획(설계) 등 각각의 분야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고(최돈민, 2008; 박태영 등, 2008; 서울특별시, 2005), 각각의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지역사회가 당면한 특정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 중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을 진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의 사례는 비단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Reardon, 2006; 김지은, 2010) 호주(Winter *et al.*, 2006) 등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사례의 고찰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이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고(Johnson, 1999; Pierre and Peters, 2012),²⁾ 또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기성시가지 쇠퇴 같은 문제점들을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더욱 많은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지역 문제

에 어떤 대학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의 구체적인 정책적 활용방안과 실현방안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범위, 구조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실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대학-지역사회 협력 사례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협력 사례들의 단순 나열식 조사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역사적, 제도적³⁾ 맥락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일본과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송경원, 2015; Yin, 2013).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 간, 특히 대학과 시청 간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을 진행 중인 요코하마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와 요코하마시의 파트너십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요코하마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학교 주변의 일부 기성시가지의 쇠퇴문제 등 한국의 많은 도시들이 이미 겪고 있거나 곧 겪게 될 문제들을 겪고 있는 중이고, 이를 대학과 지역 간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었기에 사례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 이 연구에서 시립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시 산하의 대학인 시립대는 다른 사립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지역사회가 대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고(Thomson *et al.*, 1991),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대학의 지역공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지역공헌 활동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에서, 실제로 다양한 지역공헌 활동이 시와 파트너십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립대의 사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의 구체적인 정책적 활용방안과 실현방안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특히 서울시의 경우 산하에 서울시립대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요코하마시립대의 사례를 통해 서울시립대학교⁴⁾를 활용한 지역공헌에 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건학 목적 중의 하나로 “서울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다(서울시립대학교, 건학이념). 또 서울시 내 타 대학에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행정적, 재정적 권한 및 협조요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울특별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시립대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시립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공헌 사례 고찰을 통해 서울시가 향후 서울시립대를 활용한 지역공헌에 관해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요코하마시립대 사례연구의 한계로서는 일본과 국내에서 비교적 소수인 공립대학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일반화에 있어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크게 문헌분석과 협력 과정의 주요 관계자들과의 대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문헌분석으로는 일본 내각과 총무성에서 발간된 보고서, 학술 연구 논문, 관련 기관이 발간한 브로슈어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이 있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 중 일본에서 체류하는 시간 관계상 대학과 시청에 근무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인터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용어의 정의

먼저 이 연구에서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여하고자 하는 대상과 협력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주로 위치하고, 활동하는 장소로서 ‘지역(locality)’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대학의 3대 임무중 하나인 ‘봉사’를 이야기할 때, 봉사를 통한 일

반적인 사회공헌 보다는 ‘지역’에의 공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비록 대학은 도시 및 광역(region), 나아가 국가 전반에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박영한 등, 2001),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지역단위로 한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대학주변 커뮤니티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는 모두 개념이 모호한 용어이다(남영호·채윤하, 2013; 이태희, 2015; Hillery, 1955). 영어의 ‘community’는 한글로 종종 ‘지역사회’로 번역이 되곤 한다(남영호·채윤하, 2013).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역사회’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재생과 관련한 논의에서 근린(neighbourhood) 단위로 자주 쓰이고 있는 커뮤니티와 동의어가 아닌(Meegan and Mitchell, 2001), 이보다 큰 지리적, 행정적 범위를 가진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이 연구에서 고찰할 요코하마시의 경우 대학-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가 시와 구(가나자와구) 주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의 ‘지역사회’의 범위는 주로 시와 구 단위를 지칭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말하는 ‘지역 커뮤니티’ 또는 ‘커뮤니티’의 범위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근접하게 위치하여 특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대학 근처(뒤에서 살펴볼 나미키 거점 같은 경우 나미키 거점 주변을 포함)의 커뮤니티들을 지칭하였다.⁵⁾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도시재생’의 경우, 전술했듯 지역 커뮤니티 단위에 중점을 두고 그들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을 주로 지칭하였다.

(3) 연구구조

이 연구는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일본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이 대두된 배경에 관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대학자원을 활용하고 협력을 장려하

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다. 5장에서는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요코하마시) 차원의 노력과 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시립대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협력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사례들의 도시재생에의 의의와 추가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앞에서의 사례연구가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2.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관한 문헌고찰: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1) 거버넌스의 등장과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

현대의 복잡하고 파편화된 사회에서, 오늘날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가진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Healey, 2006).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일 때가 많은데(Rittel and Webber, 1973),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Rhodes, 1997). 게다가 민주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문제해결이 강조되고 있다(Kjaer, 2009; Pierre and Peters, 2012; Healey, 2006). 여기에서 특히 효율성과 효과성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또는 협력적 이점(collaborative advantage)의 창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Dyer, 2000).

2)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의 필요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 특히 대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거나, 지역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먼저 대학은 학제 상 최상위 교육기관으로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와 학생 등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지역사회 내의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과 교실,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 대학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교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Cox, 2000).

이러한 자원들 외에도, 대학은 지역사회 정책·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요 행위자이다(Perry and Wiewel, 2005).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대학은 교육, 연구와 더불어 사회봉사의 사회적 임무(mission)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기도 하다(Scott, 2006). 대학의 사회봉사 임무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사회봉사에 더욱 초점을 맞춰, 대학의 ‘지역공헌’의 임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도시재생, 그 중에서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은 쇠퇴·낙후된 기성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상지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서울특별시 2015). 또 이곳에 거주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학력 및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고(정희운, 2005), 이에 따라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간·시설 자원과 함께 지역이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포함 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도시재생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재생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정비를 추구하고 있는데, 교육·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지역공헌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민들

의 역량강화와 지역문제에 대한 연구 등의 방법으로 도시재생 과정에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 내 대학-지역사회 협력이 대두된 배경

이명훈(2011)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대학과 지역간에 밀접한 연계활동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학령기 인구감소, 지방인재의 유출 및 지방도시 쇠퇴, 고령화 등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대학이 가진 자원을 마을만들기와 지역 재생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草津市 草津未来研究所, 2015; 上越市創造行政研究所, 2006; 羽石 学, 2007).

일본에서는 1965년부터 지방분권이 차츰 확대되어 가다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地方分権一括法)」이 시행되면서 지방 분권이 본격화되었고, 지역 자생력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지역 활성화나 지역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지식·인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을 주목하게 되었다(京都市政策企画部戰略企画課, 2015). 비슷한 시기에 대학도 학령기 인구 감소,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등의 영향으로 교육 소비자 확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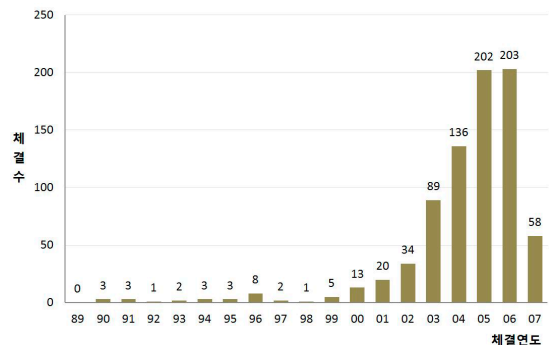


그림 1. 대학과 지자체의 협정 체결 수 추이

출처: 内閣官房都市再生本部, 2007

주: 2007년은 1~5월만 합산

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의 존재감 향상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上越市創造行政研究所, 2006).

또 이 시기 일본에서는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라는 세 가지 주요 사회적 임무들 중에서, 기존의 교육, 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사회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는 2006~2007년 사이 있었던 교육관련 법의 개정으로 이어졌고, ‘지역공헌’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로 명문화 되는데(京都市政策企画部戰略企画課, 2015),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2000년 이후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정 체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재생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

4. 대학-지역사회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정책적 지원

1) 내각관방 도시재생본부의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동에 의한 도시재생추진」(2005)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동에 의한 도시재생추진」정책을 이해하려면 2001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일련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5월, 내각 내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본부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인 「도시재생 프로젝트」⁶⁾를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전국 도시재생 모델조사」⁷⁾를 통해 드러난 공통적인 과제」가 있는데,⁸⁾ 2005년도에 선정된 모델조사 제안들의 공통된 주제 중 ‘대학이 중심이 된 마을만들기 추진’이 있었다. 또 같은 해 10-11월에는 도시재생 모델조사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8개 지역(지방공공단체와 대학)에서 「대학과 지역이 연계한 마을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표 1.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동에 의한 도시재생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

1	대학과 지역의 연계 강화에 의한 마을만들기 방법 추진
2	실천적인 사회인 육성 추진 및 사회활동 참가 촉진
3	유학생·외국인 연구자 등을 위한 환경정비 및 시민과의 만남·교류 촉진
4	시민에게 개방된 대학, 연속된 녹지의 확보 등 마을만들기와 조화된 대학 캠퍼스 형성
5	마을만들기에 적합한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체제정비

출처: 内閣官房都市再生本部, 2005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5년 12월에 이루어진 도시재생 프로젝트 제10차 결정에서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동에 의한 도시재생추진」이 선정되었다. 이는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대학 자원의 활용이 국가 정책 과제로서 추진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동에 의한 도시재생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로서 표 1의 다섯 가지가 결정되었으며, 이 과제들에 대해 각 관계 부처들이 시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교육관련 법 개정(2006-2007년)

교육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대학의 사회기여 또는 지역공헌은 대학의 의지와 설립 취지에 따라 개별적·자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이었다(京都市政策企画部戰略企画課, 2015). 그러나 지역 사회의 산업, 활성화, 재생 등과 관련한 정책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대학의 의미를 규정하는 교육관련 법 조항에 지역공헌의 의무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하였다.

2006년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7조」와 2007년 개정된 「학교교육법 제83조」에 “대학은 교육·연구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종래의 ‘연구’, ‘교육’에 이어 ‘지역공헌’이 대학의 3번째 임무로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는 향후 대학-지역사회 협력증진에 관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와 함께,

교육, 연구와 동등한 중요성으로서의 지역공헌 임무를 명시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3) 문부과학성의 「地(知)의 거점 정비 사업(대학 Center of Community 사업)」(2013년-현재)

(1) 사업의 개요 및 목적

Center of Community(이하 COC)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재정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대학은 기존의 인재육성(교육)과 지식 생산(연구)의 책무와 함께, 도시재생의 핵이 되는 대학, 평생학습의 거점이 되는 대학, 사회의 지적 기반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등 지역 재생의 핵심적인 역할 또한 담당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4). 즉 이 COC사업의 주된 목적은 ‘지역재생 및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대학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 2에서 볼 수 있는 네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4).

표 2. COC사업의 운영 방향

1	지역사회와 대학이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공유
2	교육을 통해 주체적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3	지역의 니즈와 대학의 자원의 효과적인 매칭을 통해 과제를 해결
4	더 나아가 지역진흥책의 입안 및 실시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출처: 文部科学省, 2014

(2) 사업의 진행방식 및 지원내용

COC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사업 선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이 COC사업은 대학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문제와 관련된 교육·연구·사회공헌 활동을 이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 내 전담조직 소유, 학교 전체의 교육 커리큘럼·교육조직 개혁 등 전 학교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어야 하며,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 등 대학과 지자체 간

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학 당 연간 최대 5,800만 엔(약 5억 6천만 원), 최대 5년간 지원한다(文部科学省, 2013).

2015년부터는 地(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COC+)으로 사업이 변경·확대되었는데(예산 44억엔), 이는 인구감소, 특히 젊은 층의 동경 집중 현상에 의한 지역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축소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⁹⁾. 기존의 대학-지자체 연계에서 지역 내 복수의 대학-지자체-중소기업-NPO 간 연계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 정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지역의 매력 향상 사업 등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고용창출과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한다(文部科学省, 2015). 지원액도 증가하여 대학 당 연간 최대 6,800만 엔(약 5억 6천만 원), 최대 5년간 지원한다(文部科学省, 2015).

문부과학성은 대학 COC사업을 통해 2013년 총 52건(예산 23억엔; 약 220억 원), 2014년 총 25건(예산 34억엔; 약 330억 원)의 사업을 지원하였다(文部科学省, 2014).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 볼 요코하마시립대학교의 경우 2013년 이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다.

5. 요코하마시-관내대학 거버넌스: 대학들과의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

1)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관련한 각 기관의 주요 리더들의 모임

요코하마시는 2005년 3월에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대학이 가진 지적 자원과 인재를 활용하여 지역 과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 지역, 행정, 기업 간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横浜市政策局大学調整課, 2015a).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관련된 기관들의 대

표자급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협의회는 요코하마시 소재 30개 대학¹⁰⁾의 학장 또는 이사장들과 요코하마시의 시장 및 정책국장, 그리고 관내 구청장들(2012년부터 참여)로 구성되어있다. 이 협의회는 연 1회 개최되는데, 각 기관들을 대표하고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들이 의견 교환을 하고, 큰 틀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남의 장이다. 조직들 간의 협력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리더들의 의지'를 꼽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Googins & Rochlin, 2000), 이러한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존재는 성공적인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대표자 회의와 함께 요코하마 시청 및 각 대학의 실무 담당자들이 만나서 세부적인 실무를 수행하는 「사무담당자 회의」가 있다. 이 회의는 2015년도까지 총 42회 개최되었다(横浜市政策局大学調整課, 2015b).

2) 시청 및 대학 내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관련한 전담 조직

요코하마시는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와 행정, 대학,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2005년 4월, 요코하마 시청 정책국 내에 「대학조정과」를 설치하였다. 이곳은 대학관련 업무에 관한 전담 소통 창구 및 각 대학들과 시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데(이명훈, 2011), 연계내용에 따라 시청 내 담당부서를 배정하고 있다.¹¹⁾ 협의회에서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사업들이 정해지면 정책국과의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 여기에서 대학조정과는 결정된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이명훈, 2011), 지역 요구사항의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전담 행정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김철영, 2013).

시청뿐 아니라 대학 내에도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례연구 대상인 시립대의 경우, 2009년 「지역공헌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지역사회 협력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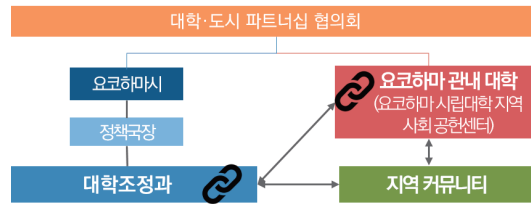


그림 2. 요코하마시-관내 대학들-지역커뮤니티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및 시청과 대학 내 전담조직

출처: 저자 작성

2015년에는 대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지역사회 연결 창구로서 「자원봉사지원실」을 설치하여 학생의 지역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¹²⁾.

대학조정과와 지역공헌센터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와 유사한 목적¹³⁾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문헌(박세훈, 2015)을 바탕으로, 시청과 대학 내 전담조직의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장점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서로 다른 조직들 간, 그리고 조직과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하고 있다. Northmore and Hart(2011)를 비롯한 많은 조직들 간 협력에 관한 연구들이 주장하듯, 이렇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조직의 존재는 기관들 간의 성공적인 협력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협력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는 위 조직들이 협력사업을 전담함으로써, 거버넌스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책임성이 모호해지는 문제(Stoker, 1998)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거버넌스와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협력은 요코하마시 차원을 넘어, 시립대가 위치한 가나자와구(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장의 「캠퍼스타운 가나자와」 협력사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6. 요코하마시립대학교-지역사회 주요 협력사례와 도시재생에의 의의 및 가능성

1)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및 협력활동 개관

요코하마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는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의 본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공립(시립) 종합대학으로 1882년 설립된 요코하마상법학교가 모체이다. 가나자와하트케이(金沢八景), 후쿠우라(福浦) 등 4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4,700여 명과 교수 700여 명(2015년 기준)이 소속되어 있다(요코하마시립대학교, 학교소개).

시립대는 2002년, 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던 나카다 히로시(中田宏) 요코하마 시장의 취임 이후 지역공헌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¹⁴⁾ 이러한 지역공헌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2013년 문부과학성의 COC사업에 선정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표 3. 시립대의 COC사업 진행방향

1	지역관련 교육 및 커리큘럼 개혁을 통한 인재 육성
2	교원의 지역공헌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과제 대응
3	위성거점 개설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여
4	공개강좌의 강화 및 발전(환경관련 강좌 추가)
5	자원봉사 지원실 설치를 통한 학생의 지역공헌 활동 지원 강화

받으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COC사업의 선정 당시 시립대가 밝혔던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방향은 표 3의 다섯 가지였는데,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방향은 협력 사업들에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많은 협력 사례들 중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별로 크게 공간·시설 자원을 활용한 협력과 지식·인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으로 분류하였고(표 4),¹⁵⁾ 도시재생에의 의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2) 공간·시설 자원을 활용한 협력 사례와 도시재생에의 의의

(1) 나미끼 거점, 칸나이 거점 개설: 지역공헌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

COC사업에 응모할 당시 계획했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위성거점 개설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여’의 일환으로 설립된 지역 거점 시설이다. 요코하마시와 관련된 주택공급업자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 보조금으로 월세를 충당하고 있다.¹⁶⁾

먼저 나미끼 거점은 2014년 가나자와구 나미끼 지역 상점가 내 빈 점포에 마련된 시립대의 지역 공헌활동 거점 공간이다. 이 거점은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국적인 선진모델 사례가 되는 것을 목표

표 4. 시립대의 대학-지역사회 주요 협력사례

협력유형	협력 프로그램
공간·시설 자원을 활용한 협력	나미끼 거점, 칸나이 거점* 캠퍼스 시설 개방(도서관, 다목적 홀, 수영장 개방)
지식·인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	평생교육(어학강좌, 교양강좌, 의료강좌)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캠퍼스타운 가나자와(젊은 인재 확보에 의한 지역기업 활성화 사업 등) 지역에 관한 연구 및 수업*(지역도매업 활성화, 지역마을만들기 실습 등) 학생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마을만들기 과정 스즈키 세미나 등)

* COC사업에 의한 사업

출처: 요코하마시립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재작성



그림 3. 나미끼 거점(좌), 관내 거점(우)
출처: 나미끼 거점 페이스북(좌), 구글맵(우)

로 설립되었다(公立大学法人 横浜市立大学, 2015). 나미끼 지역은 주민들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시립대는 이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를 비롯하여, 건강 관련 지식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조사, 건강한 삶에 관한 강좌, 건강 상담 등 ‘시니어 건강’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公立大学法人 横浜市立大学, 2015). 또한, 시립대의 위성 사무소로서 지역에 관한 교육, 조사·연구의 발표, 정보발신 등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나미끼 거점은 지역 주민들을 향해 열린 공간으로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 코너, 각종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이 제안·기획한 이벤트, 세미나 등도 개최하는 등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립대의 교직원과 학생, 주민들(자원봉사)이 거점을 운영·관리하고 있다.¹⁷⁾ 또 5년 후 COC사업에 의한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지역이 자립적으로 거점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준비 중에 있다(公立大学法人 横浜市立大学, 2015).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경우 일 평균 20~30명이 방문하고 있다.

칸나이 거점은 시내 중심부의 세어 오피스 내에 위치하고 있다. 교원의 지역공헌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서 ‘마을 형성의 기초’, ‘알고 싶고 친밀한 건축의 규칙’ 등 시민들을 위한 강좌나 시민참여 형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구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데이터 수집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접

근이 용이한 시내 중심부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행정이나 기업, NPO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사·연구, 강좌, 정보 발신 등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 역시 이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또한, NPO 담당자의 해설과 함께 마을 걷기, 강의, 워크숍 등 NPO사업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강좌도 실시하고 있다(公立大学法人 横浜市立大学, 2015). 나미끼 거점은 달리 상주 인력은 없으나, 세어 오피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 및 사용이 가능하다.¹⁸⁾

이러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주민들 간의 자체적인 활동과 만남을 위한 대학 주도의 거점공간의 개설은 도시재생에 중요한 의의를 제공한다. 현재 두 거점에서 진행 중인 것과 같이,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나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이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대학 주도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는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 주도의 지역공헌 프로그램에서의 만남 외에도, 지역 내 조성된 열린 공간인 거점 내의 카페나 도서코너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형성·강화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국내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마

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유창복, 201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립대의 거점시설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앵커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 추진 중에 있다(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2) 대학시설의 개방

시립대는 도서관, 다목적홀, 수영장 등 학교 내 시설을 무료 또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받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 가나가와현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또 ‘시민이용제도’에 등록된 사람(500엔/1년)에 한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목적 홀의 경우 대학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 공간을 동아리 그룹 활동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영장 같은 경우 일요일 및 휴일에 한해 유료로 개방하고 있다.

전술했듯,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대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쇠퇴·낙후 지역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용지가 충분하지 않고 토지가격이 비싼 기성시가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장이 쉽지 않다. 이렇게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근처에 대학이 위치해 있다면, 대학의 시설개방을 통해서 주변지역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립대 사례에서 살펴본 도서관, 다목적홀, 수영장 외에도, 학교가 보유한 시설에 따라 극장, 체육시설, 미술관, 주차장을 개방할 수도 있다. 또 캠퍼스가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담장개방을 통해 주변지역에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3) 지식·인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 사례와 도시재생에의 의의

(1) 평생교육 및 지역의 니즈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

시립대는 대학이 가진 지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25세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캠퍼스 내부 및 시내 공연장 등에서 영어를 비롯한 어학강좌, 문학·역사·예술·비즈니스·자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 의학 전문지식이나 가벼운 건강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의료강좌 및 워크숍 등 연간 총 100개 이상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강좌마다 수강료는 다르다. 이 밖에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나미키 거점과 칸나이 거점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건강강좌와 마을만들기 강좌 등 지역 커뮤니티의 니즈에 맞는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 문제 해결에 관한 시민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 나미키 거점과 칸나이 거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변 지역 커뮤니티의 니즈에 맞는 강좌들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향후 이를 확장하여 주변 지역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도 있다. 여기의 예로서는 상가가 많은 지역 주변에서는 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역량강화의 효과와 더불어,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

표 5.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양 교육 강좌

강좌	내용
영감을 얻는 설레는 과학 블랙 잭 세미나	최첨단 과학 연구 체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의사 직업 체험 세미나
기하라 생물학 연구소 연계 강좌 츠루미 캠퍼스 연계 강좌	밀 수학 체험과 밀가루를 사용한 실험 등 밀 관련 수업진행 중·고등학생들의 직업 체험 교육

출처: 公立大学法人 横浜市立大学, 2013

은 부차적으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시민들 간에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2) 초·중·고 학생, 교사를 위한 교육 강좌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대학 내부에서 진행한다. 강좌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이 밖에도 시립대는 2007년에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와 함께 ‘요코하마시립대학과 요코하마시립고등학교의 교육연계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표 6).

시립대가 그들이 가진 지식·인적 자원과 함께 프로그램에 따라 연구소 등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초·중·고 학생,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더 나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간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동시에 좋은 환경을 찾아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가 진행하였던 지역 커뮤니티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들 수 있다(Kromer and Kerman, 2004).

(3) 캠퍼스타운 가나자와

「캠퍼스타운 가나자와」는 가나자와구청의 주도하에 ‘대학이 있는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2008년 가나자와구 내에 위치한 시립대와 간토학원, 가나자와구청이 3자 협정을 체결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이 협력 사업은 구 내 두 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양 대학들이 보유한 지식, 인적, 시설 자원을 활용하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행동력을 활용하여 활력 있고 개성 넘치는 마을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¹⁹⁾ 이 사업을 통해 구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지역 활동 지원, 지역 기업 및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표 7과 같다.

이 협력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 본 요코하마시와 관내 대학들 간의 협력 거버넌스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들은 협력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였고 이들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세 기관들은 각각 「연계조정창구(連携調整窓口)」(협력 전담 조직)를 설치하였고, 이들이 중심이 된 「연계추진회의」를 협의기관으로 두었다. 가나자와구청은 「구정추진과」와 「지역진흥과」를, 간토학원은 「총무과」와 「학장사무실」을 각각 연계조정창구로 하였다. 시립대의 경우는 초기에는 「경영기획과」와 「연구추진과」를 연계조정창구로 활용하다가 현재는 지역공헌센터에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金沢区役所, 2008).

「캠퍼스타운 가나자와」는 다른 협력프로그램들과는 달리 구청이 주도가 되어 구 내 위치한 대학들과

표 6. 고등학교와의 교육연계 프로그램

구분	내용
대학 수업 참여	공통 교양 과목 중 ‘종합강의’, ‘기초과학강의’에 시립고등학교와 현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수강을 허용
고등학교 영어교과목 교사 연수	시립고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시립대의 ‘실천적 영어 프로그램(Practical English)’수업을 견학하거나 영어 수업법 등을 배우는 기회 제공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런티어 고등학교 연계	9명의 대학교 교원이 과학 기술 고문으로 취임, 각 학년에서 ‘과학 지식’ 과목 개설, 실험실 견학이나 무료 학습지도도를 실시. ‘대학으로의 연속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매년 10명 정도가 시립대에 입학

출처: 公立大学法人 横浜市立大学, 2013

표 7. 캠퍼스타운 가나자와의 주요 사업

구분	내용
캠퍼스타운 가나자와 지원 사업	학생들의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區)에서 공모를 통해 보조금 지급(예: 지역역사유산을 활용한 사업 최대 20만엔/건, 지역활성화 등 기여사업 최대 5만엔/건 등 현재까지 총 38개 단체 지원)
가나자와구 지역 기업의 매력발신 프로젝트	학생들이 지역기업을 취재하여 각 기업의 특징과 강점, 매력을 책으로 발간하는 프로젝트, 2013년부터 매년 실시
젊은 인재 확보에 의한 지역 기업 활성화 사업	젊은 인재 확보를 통한 구내 중소기업 활성화 연구를 진행. 대학생의 취업인식 조사(2013년), 기업의 젊은 인재 확보에 관한 조사(2014년)가 실시됨. 2015년부터 기업과 학생의 인재 매칭(matching)을 목표로 의견교환의 장 제공 등 추진 예정
마이 타운 가나자와 핫케이(八景) 프로젝트	'학생-지역NPO-상가 공영회'가 협력하여 가나자와핫케이 역 주변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2009년 빈 점포를 활용한 활동 거점 마련.

출처: 金沢区役所, 2008



그림 4. 캠퍼스타운 가나자와 활동 모습

자료: 요코하마시 홈페이지, 요코하마시, 캠퍼스타운 가나자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 다른 협력 프로그램들과 비교해 학생들의 참여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지역이슈와 관련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이슈에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은 참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 향후 학위논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로 발전할 수도 있다.

서울의 경우도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관내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의 자원이 많은 구들이 있다.²⁰⁾ 이런 구들은 관내 낙후지역 재생 시 학-관-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적절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변의 대학이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4) 지역에 관한 연구 및 수업

시립대는 2011년부터 '교원 지역공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원들이 연구 과제를 제안하여 채택된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다. 2011년 4건, 2012년 5건, 2013년 5건의 사업이 채택되었다. 이후 COC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신청 및 채택 건수가 급증하여 2014년 18건, 2015년 20건²¹⁾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또 2013년부터는 교원뿐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로부터도 과제를 제안 받아 제안자와 교원이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행되었던 연구의 예로는 '지역도매업 활성화', '요코하마시 문화재 시설의 활성화', '가나자와구 내 중소기업의 젊은 인재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등이 있다.

시립대는 또한 '요코하마학 입문', '요코하마와 산

업', '마을만들기학 입문'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교양 과목에서 캠퍼스 주변을 견학하는 등 지역사회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 중이다. 주로 1학년이 이수하는 종합강의 및 교양과목에서 개설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지역 중심의 특색 있는 강의 중 1과목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COC 사업 시행 이후 '지역 마을만들기 실습' 등 지역과 관련한 실습수업들이 확대되고 있다. 2013년 15과목에서 2014년 102과목으로 늘었고, 2017년까지 120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外部評價委員會, 2015). 또한 지역 실습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홈페이지 제작, 영상제작, 취재기술 등 지역 실습 과목 이수 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와 교육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임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연구나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은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형태의 공헌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전문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연구를 통해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지자체 문제에 관한 연구 외에도, 대학은 지자체의 정책 설계나 모니터링 등과 관련해서도 기여할 수 있다(박영한 등, 2001).

또 대학은 지역에 관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현장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experiential learning)은 교육적으로 배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Kolb and Kolb, 2005).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으로 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의 참여율이 높아지거나, 위의 캠퍼스타운 가나자와에서 언급 했듯이 향후 학위논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로 발전될 수 있다.

7.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중앙정부와 요코하마시, 그리고 요코하마시립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의 현황과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지역사회 협력 사례들의 도시재생에의 의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일본은 최근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 고령화, 지방쇠퇴, 학령인구 감소, 기성시가지 쇠퇴 같은 문제들을 먼저 경험 해오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 내에 위치하며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대학들과의 협력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에서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가 시작되었던 배경으로서 지역분권의 확대, 대학의 학령기 인구 감소 및 존재감 향상의 필요성, 대학의 사회공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노력에 관해 살펴보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해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COC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COC사업은 도시재생 및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대학형성을 목표로 문부과학성에서 최장 5년 동안, 연간 최대 5,800만 엔(약 5억 6천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요코하마시립대학교의 경우도 2013년 이 사업에 선정되어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에 관련한 연구를 대폭 확대 진행 하는 등 지역공헌 활동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

지방정부 역시 대학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시청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요코하마시 주도로 시장을 포함한 각 기관의 리더들로 구성된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설립하였고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

한 정례회는 만남을 통해 기관들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자 동시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기관 리더들 간의 정례회 외에도, 회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무담당자 회의」를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요코하마시의 경우 시청 내 정책국 산하에 대학과의 협력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대학조정과」를 설립했다. 여기서는 각 대학 내에 설립된 협력 전담 조직과 지역의 커뮤니티들과 상시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 거버넌스는 시(市) 단위뿐 아니라 구(區) 단위에서 진행되는 협력에서도 존재한다. 시립대가 위치한 가나자와구의 경우, 구청 주도로 「연계조정창구」를 설치하였고, 「연계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 각 기관에 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는데, 구청은 구청 내 「구정추진과」와 「지역진흥과」에서, 시립대 같은 경우 「지역공헌센터」에서, 그리고 또 다른 참여 대학인 간토학원은 「총무과」와 「학장사무실」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들은 특히 실현방안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일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거나 정책의 민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등 ‘바람직’하다면, 공공부문은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의 정책적 지원들 중, 적절한 목적과 규모의 재정적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대학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대학이 그들의 예산을 지역공헌에 사용하는 비중을 더욱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많다(Vidal *et al.*, 2002). 하지만 Vidal *et al.*(2002)가 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듯 대학의 예산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공헌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비록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본 연구가 포함된 서울연구원의 정책과제(2014-PR-45)에서 실시했던 서울시 내 대학교 시설 및 총무처 교직원들과의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도, 대학의 지역공헌

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율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적절한 목적과 규모의 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COC사업과 가나자와구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 재정적 지원과 함께, 요코하마시와 가나자와구의 협력 거버넌스 설립과, 거버넌스 내 기관들의 전담 조직 운영 사례 역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직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과 관련 한 많은 연구들이 협력에 대한 리더들의 의지, 조직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다리’의 중요성들을 강조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렇게 리더들 간에 정기적으로 만나고, 사안에 따라 실무자들 간에 상시적으로 협의하며, 파트너십 내에서 기관들 마다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은 성공적인 협력이 될 수 있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시립대와 지역사회 간의 구체적인 협력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협력사례들의 도시재생에의 의의와 활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대학은 공간·시설 자원, 지식·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기관이다. 시립대는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헌을 진행하고 있었다. 앞장에서 살펴본 도시재생에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은 공헌활동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크게 공간·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공헌; 역량강화와 관련한 공헌; 커뮤니티 형성과 관련한 공헌; 마지막으로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공헌 등 네 가지로 재정리해 보았다.

먼저 대학은 캠퍼스나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공헌을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쇠퇴·낙후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공간·시설의 제공은 커뮤니티 활동이나 교육, 연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분야의 공헌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또 나미키 거점과 칸나이 거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학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

는 캠퍼스 공간과 시설을 개방하는 형태를 넘어서, 이러한 거점 공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학이 주도가 되어 설치하는 것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공헌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대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시립대에서 진행 중인 것과 같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민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거점에서 실행 중인 지역의 니즈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역민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생봉사나 마을만들기 등의 협력활동을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민들의 역량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다양한 대학의 지역공헌활동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관심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커뮤니티 형성에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대학은 연구나 수업, 봉사활동 또는 기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시립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수업이나 학생 봉사활동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캠퍼스타운 가나자와나 학생봉사 사례처럼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들과 협력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공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정비를 추구하는 ‘도시재생’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형성 및 실행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고찰해본 공간·시설 자원, 지식·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지

고 있는 교육·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사회공헌의 사회적 임무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인 대학은 도시재생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에서의 연구는 도시재생 과정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주장에 머물러 있었을 뿐, 협력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살펴본,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 문제를 먼저 경험해 왔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부분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시립대 간의 협력 사례의 고찰은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고찰한 요코하마시립대 사례는 산하에 서울시립대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주

- 1) 반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은 “산단, 향만, 역세권 정비 및 복합개발 등을 통한 고용기반 창출” 등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 2)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과거 고도 성장기에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모델을 통해 성장해 왔다(Johnson, 1999).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 해체되고 공공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대두된 뒤로도 거버넌스 내에서 국가의 역할과 영향력이 상당하였고, 그래서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state-centric)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Pierre and Peters, 2012).
- 3) 여기에서 말하는 제도(institution)는 법, 정책, 정치 시스템 등 공식적(formal) 제도를 지칭한다(Alexander, 2005).
- 4) 서울시립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 종합대학교이다.
- 5) ‘커뮤니티’는 의 경우 특정 동질성(homogeneity)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글로벌 공동체’, ‘국가공동체’, ‘사이버 공동체’ 등에서도 볼 수 있듯 그 범위가 꼭 지역(locality)일 필요는 없다(Walsh, 1996 참조). 하지만 영국의 도시재생의 예를 보더라도 ‘커뮤니티’ 참여를 이야기할 때는 주변 지역의 거주민이나 상인들을 지칭할 때가 많다(Tallon, 2012 참조). 비슷하게 미국의 경우 ‘대학-커뮤

- 니티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이때도 역시 대학과 대학 주변에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Reardon, 2006).
- 6) 관계부처, 지방공공단체, 관계민간주체가 참가·연계하는 프로젝트로, 여러 후보 과제 중 도시재생본부가 결정한다. 2001년 6월 제1차 결정을 시작으로 2007년 6월 제13차 결정까지 총 23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 7) 도시재생본부가 2003~2007년까지 매년 실시. 전국에서 제안을 모집하여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570건 응모, 약 160건이 선정되었다.
 - 8)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01honbu/index.html>(2015.12.03.).
 - 9)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 대학진흥과 대학개혁추진실 개혁지원제1계 담당자 인터뷰
 - 10) 엄밀하게 말하면 요코하마시 내에 위치한 28개 대학과 요코하마시 근처에 위치한 2개 대학을 합쳐 30개 대학이 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 11)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 담당자 츠즈미씨 인터뷰.
 - 12) 이번 사례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와 유사하게 왜세다 대학의 경우도 「사회연계추진실」과 「히라야마이쿠오 자원봉사센터」라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다.
 - 13) 자원동원과 연계를 통한 다른 조직의 효과성과 전체 운영의 효율성 향상, 협력과 정보의 제공, 공생과 협력을 목표로 조직들 간의 중개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박세훈, 2015)에서 위의 전담조직들은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4) 2002년 취임한 나카타 히로시(中田宏) 요코하마 시장은 시립대학교는 전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대대적인 대학 개편이 이루어졌다. 조직과 인사개혁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시립대를 공립대학법인화 시켰다. 또한 이때 대학의 기본 이념을 “1. 교육 2. 지역공헌 3. 학생중심”으로 바꾸었다. 이를 계기로 시립대의 지역공헌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시립대 마치즈쿠리학과 스즈키 노부하루 교수 인터뷰).
 - 15)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대부분의 협력 사례들이 공간·시설 자원과 지식·인적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고, 따라서 명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 협력활동이 다양한 자원들을 동시에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을 경우, 그중 가장 중요한 자원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
 - 16) 요코하마시립대학 지역공헌센터 카나이씨 인터뷰
 - 17) 요코하마시립대학 지역공헌센터 카나이씨 인터뷰
 - 18) 요코하마시립대학 지역공헌센터 카나이씨 인터뷰
 - 19) <http://www.city.yokohama.lg.jp/kanazawa/kusei/ki->

[kaku/campus-town/](http://www.city.yokohama.lg.jp/kanazawa/kusei/ki-kaku/campus-town/)(2015.12.09.)

- 20) 서대문구의 경우 관내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고, 성북구의 경우 고려대, 국민대 등 7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 21) 2014년: 지역사회 협력연구 8건, 대학 자체연구 10건, 2015년: 지역사회 협력연구 9건, 대학 자체연구 11건.

참고문헌

- 김세용, 2011,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가능성,” 도시문제, 515, 20-23.
- 김지은, 2010,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연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1(3), 69-86.
- 김철영, 2013,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일본의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마을만들기 추진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계획학회지, 14(5), 65-78.
- 남영호·채윤하(역), 2013, 도시연구의 주요개념, 라움 (Gottdiener, M, and Budd, L., 2005, *Key Concepts in Urban Studies*, Sage, London).
- 류훈, 2011 “대학 캠퍼스가 주변도시에 미치는 역할, 상생,” 도시문제, 515, 24-28.
- 박세훈, 2015,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도시행정학보, 28(3), 75-104.
- 박영한·조영국·안영진, 2001, “대학과 지역발전: 연구동향과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6(4), 418-433.
- 박태영·김숙경·오주·이경은·장덕희, 2008, 자원봉사론, 공동체.
- 서울특별시, 2005,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2015,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송경원(역), 2015, 왜 케이스 스터디인가, 여크로스(井上達彦, 2014, *ブラックスワンの経営学*, 日経BP社).
- 여혜진·김광중, 2008, “대학-지역사회 협력적 계획의 한국적 여건: 서울소재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대한국토계획학회지, 43(5), 91-106.
- 여혜진·김홍규·이주일·임엽, 2010, “대학-지역사회 간

- 협력과 지역사회 재생,” 도시정보지, 338, 3-15.
- 유창복, 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 이명훈, 2011,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일본 도시재생 사례,” 도시문제, 515, 33-39.
- 이태희, 2015, “공동체 참여형 도시재생의 의미와 정책 내 반영실태에 관한 고찰,” 국토연구, 86, 139-159.
- 정희윤, 2005,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 도시문제, 439, 21-31.
- 최돈민, 2008, “지역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대학 평생 교육의 기능과 역할 제고 방안,” 교육종합연구, 6(2), 89-111.
- Alexander, E. R., 2005,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and Planning: From Institutionalization Theory to Institutional Design. *Planning Theory*, 4(3), 209-223.
- Cox, D., 2000, Developing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s, *Cityscape*, 5(1), 9-26.
- Dyer, J. H. 2000. *Collaborative advantage: Winning through extended enterprise supplier network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Googins, B. and Rochlin, S., 2000, Creating the Partnership Society: Understanding the Rhetoric and Reality of Cross-Sectoral Partnerships,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05(1), 127-144.
- Healey, P., 2006, *Collaborative Planning: Shaping Places in Fragmented Societies*, 2nd Edition. Palgrave Macmillan, Houndmills.
-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Johnson, C.,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Odyssey of a Concept, In *The Developmental State*, edited by Woo-Cumings M., 32-60,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Kjaer, A., 2009, Governance and the Urban Bureaucracy, In *Theories of Urban Politics*, 2nd Edition, edited by Davies, J. S. and Imbroscio, D. L., 137-68, Sage, London.
- Kolb, Y. and Kolb, D., 2005,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Spaces: Enhancing Experiential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4(2), 193-212.
- Kromer, J. and Kerman, L., 2004, *West Philadelphia Initiatives: A Case Study in Urban Revitaliz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Meegan, R. and Mitchell, A., 2001, ‘It’s Not Community Round Here, It’s Neighbourhood’: Neighbourhood Change and Cohesion in Urban Regeneration Policies, *Urban studies*, 38(12), 2167-2194.
- Northmore, S. and Hart, A., 2011, Sustaining Community-University Partnerships, *Gateway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Research and Engagement*, 4, 1-11.
- Perry, D. and Wiewel, W., 2005, *The University as Urban Developer: Case Studies and Analysis*, ME Sharpe.
- Pierre, J. and Peters, B., 2012, Urban Governance, In *Oxford Handbook of Urban Politics*, edited by Mosserberger, K., Clarke S.E., and John, P.,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Reardon, K 2006, Promoting Reciprocity within Community/University Development Partnerships: Lessons from the Field, *Planning, Practice & Research*, 21(1), 95-107.
- Rittel, H. and Webber, M., 1973,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s*, 4(2), 155-169.
- Rhodes, R., 1997, Foreword, In *Managing complex networks: strategies for the public sector*, edited by Kickert, W. Klijn, E. H., and Koppenjan, J., Sage, London.
- Scott, J., 2006, The Mission of the University: Medieval to Postmodern Transformation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7(1), 1-39.
- Soska, T. and Butterfield, A. K. J. (Eds.), 2005,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s: Universities in civic engagement*, Routledge, Binghamton, NY.
- Stoker, G., 1998,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17-28.
- Tallon, A, 2012,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2nd ed., Routledge, London.
- Thompson, G., Frances, J., and Levacic, R. (Eds.), 1991, *Markets, hierarchies and networks: the coordination of social life*, Sage, London.

- Vidal, A., Nye, N., Walker, C., Manjarrez, C., Romanik, C., Corvington, P., Ferryman, K., Freiberg, S. and Kim, D., 2002, *Lessons from the 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 Center Program*, Urban Land Institute, Washington D.C.
- Walsh, K., 1996, The Value of Community, In *Rethinking Local Democracy: Government Beyond the Centre*, edited by King, D. and Stoker, G., Palgrave, London.
- Winter, A., Wiseman, J. and Muirhead, B., 2006. University-community engagement in Australia practice, policy and public good, *Education,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1(3), pp.211-230.
- Yin, R., 201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London.
- 金沢区役所, 2008, キャンパスタウン金沢協定式 記者発表資料.
- 外部評価委員会, 2015, 環境未来都市構想推進を目的とした地域人材開発・拠点づくり事業 平成26年度事業評価報告書.
- 京都府政策企画部戦略企画課, 2015, 大学・地域連携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 内閣官房都市再生本部, 2005, 都市再生プロジェクト(第十次決定)決定文.
- 内閣官房都市再生本部, 2007, 大学と地域との取組実態についてのアンケート調査結果.
- 文部科学省, 2013, 平成25年度 地(知)の拠点整備事業 公募要領.
- 文部科学省, 2014, 平成26年度 地(知)の拠点整備事業パンフレット.
- 文部科学省, 2015, 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COC+) 事業説明会資料.
- 横浜市政策局大学調整課, 2015a, 大学・都市パートナーシップ協議会パンフレット.
- 横浜市政策局大学調整課, 2015b, 大学・都市パートナーシップ協議会 第9回代表者会議 記者発表資料.
- 上越市創造行政研究所, 2006, 大学と地域の連携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上越市における上越教育大学・新潟県立看護大学と地域の連携について-.
- 公立大学法人 横浜市立大学, 2013, 横浜市立大学の地域貢献パンフレット.
- 公立大学法人 横浜市立大学, 2015, 横浜市立大学 平成26年度COC事業報告書.
- 草津市 草津未来研究所, 2015, 大学と地域の連携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大学のある都市としての優位性を活かすために-.
- 羽石 学, 2007, “自治体・大学・地域の連携によるまちづくりに関する調査研究,” 宇都宮市 市政研究センター 平成19年度 研究報告, 25-34.
- 구글맵, <https://maps.google.com/>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396/DTL.jsp.
- 나미끼 거점 페이스북, <https://ja-jp.facebook.com/namiki.ycu>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이념, <http://www.uos.ac.kr/kor/html/auos/vision/principle/principle.do>
- 요코하마 로컬 굿 뉴스, <http://yokohama.localgood.jp/news/1618/>
- 요코하마시, <http://www.city.yokohama.lg.jp>
- 요코하마시, 캠퍼스타운 가나자와, <http://www.city.yokohama.lg.jp/kanazawa/kusei/kikaku/campus-town>
- 요코하마시,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 <http://www.city.yokohama.lg.jp/seisaku/daigaku/partnership/committee>
- 요코하마시립대학교, 학교소개 <http://www.yokohama-cu.ac.jp/index-e.html>
- 일본 총리관저, 도시재생본부,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01honbu/index.html>
- 교신: 김태현,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이메일: innerpower69@si.re.kr)
- Correspondence: Taehyun Kim,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Research, The Seoul Institute,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06756, Korea (e-mail: innerpower69@si.re.kr)

최초투고일 2016. 1. 20
수정일 2016. 2. 16
최종접수일 2016. 2. 25